

사회적 단서와 정서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이 상 미¹⁾

충북대학교 부설어린이집

한 세 영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이 다양한 사회적 단서와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세 및 5세 유아 104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림으로 묘사된 표정과 상황단서를 제시하고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측정하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t test와 F-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이입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세아가 4세아보다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쉽게 지각하였다. 4세아와 5세아 모두 정서인식에서 상황단서보다는 표정단서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상황단서를 사용한 유아들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단서가 모순되는 경우보다는 일치하는 경우에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더 잘 이루어졌다.

주요어 : 정서인식, 감정이입, 사회적 단서, 정서의 종류

* “이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충북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교사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에는 상징적 표상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감정이입을 하여 이를 언어로 표현할 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줄 아는 능력은 유아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허정목, 2005).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라는 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정서인식은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인식하며 이해하는 능력이다. 방승희(1997)는 정서를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 경험하는 정서상태 뿐 아니라 정서유발요인 및 결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국승희와 김숙령(2006)은 정서인식에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영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유아기까지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4~6개월 사이에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12~18개월 사이에

는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적 단서로 타인의 정서를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기는 자의식이 증가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여 조절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정은주, 2005). 만 2세에는 표상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귀납적 사고와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면서 역할놀이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견하기도 한다. 3~4세경이 되면 자기 가치에 대한 감정이 발달되면서 유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강해진다(이숙재, 1997).

박윤정(1997)에 의하면 두 가지 정서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동시적 개념구조가 발달되어야 하는데, Harter와 Buddin(1983)에 의하면 아동기에는 정서와 관련해서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두 가지 정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된다(박윤정, 1997, 재인용). 그러나 유아기는 그 정도의 복잡한 정서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유아기에는 인지능력이 향상하고 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정서인식이 더욱 증가한다. 4~5세 이후부터는 타인의 정서를 판단할 때 얼굴표정, 맥락, 사람의 성향 등 여러 요인을 통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5~6세 된 유아들은 감정을 더욱더 많은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들은 보다 복잡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7세경에는 자랑, 질투, 걱정, 죄의식 등의 정서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다.

즉, 정서인식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뿐 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까지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게 되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는 능력인 감정이입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과 기분, 정서를 바르게 인식할 때, 타인의 정서 상태나 정서적인 상황에 적합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며, 나아가 타인의 정서적 고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Morrison & Bellack, 1981).

감정이입은 타인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행동을 이끌며(방승희, 1997),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홍정주, 1988; 홍화진, 1987; Hoffman, 1975; Iannotti, 1978)를 가져와 아동의 도덕적 가치 발달과 긍정적인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Staub, 1979; 문희영, 1985).

대부분의 학자는 타인의 정서를 인지적으로 인식하는 측면과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감정이입을 정의하였다(Feshbach, 1968; Hoffman, 1983). 이에 따라 Hoffman(1983)은 공감적 정서와 사회·인지적 발달을 연결하여 감정이입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총체적 감정이입단계(Global Empathy)이고, 둘째는 자기중심적 감정이입단계(Egocentric Empathy)이다. 셋째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입단계(Empathy for Another's Feeling)이며, 넷째는 타인의 일반적 곤경에 대

한 감정이입단계(Empathy for Another's General Plight)이다. 어린 유아는 자기중심적 감정이입 단계에 머물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세 번째 단계인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입단계(Empathy for Another's Feeling)에 도달한다.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 별개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며,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감정이입의 발달은 인지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경, 2000; 홍길희, 1987; Eisenberg & Mussen, 1989; Harter & Buddin, 1987). 유아는 인지능력의 증가에 따라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단서로 하여 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며(Charlesworth, 1982; Hochschild, 1983) 타인의 정서를 예측하게 되면서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감정이입과 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밝힌 직접적인 연구는 별로 없지만, 감정이입이 정서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연령과 감정이입이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점(김선희, 1996; 전경실, 1993)을 통해 유아의 인지능력과 감정이입 간의 정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연령이 되면,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한 감정이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Eisenberg와 Lennon(1980)은 여아가 더 감정이입을 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성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

을 살펴보면 김종경(1992)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남아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여아가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이현주(1998), Maccoby와 Jacklin(1974)은 남·여 간의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고 하여 불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따른 정서 인식과 감정이입

영아기부터 분화되기 시작하는 정서는 초기에는 크게 쾌의 정서와 불쾌의 정서로 구분되어 발달하기 시작한다. 갓 태어난 아기들도 대체로 유쾌한 자극에 관심을 보이는 상태와 불쾌한 자극을 피하려는 상태의 두 가지 정서 상태를 나타내지만, 이런 정서는 점차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분화하게 된다(박성연, 2006). 영아기에 나타나는 초기정서에는 슬픔, 즐거움, 놀람, 화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유아기에도 이러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발달이 계속된다. Hater와 Buddin(1987) 또한 유아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발달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한 바 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정서를 동시에 조합할 수 없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통합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였다. 영아기에 분화된 긍정·부정의 정서를 유아기에는 타인의 것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학자들은 기쁨, 사랑, 행복 등의 긍정

적 정서와 슬픔, 고통, 불안, 두려움, 실망 등의 부정적 정서의 발달 순서에 대해 불일치된 견해를 제시해 왔다. 영아기에 분화되는 정서 중 즐거움, 흥미 등 긍정적 정서보다는 놀람, 화남, 슬픔 등 부정적 정서가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의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인식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아의 표정단서를 통한 정서인식이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포와 같은 정서에 대한 인식이 다른 정서에 대한 인식에 비해 정확하다는 보고가 있어 정서인식이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Székely, Tiemeier, Arends, Jaddoe, Hofman, Verhulst, & Herba, 2011). 또한 성, 인종 등을 포함한 사회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Bijlstra, Holland, Wigboldus, 2010; Fischer, Mosquera, van Vianen & Manstead, 2004; Hugenberg, 2005; Hugenberg & Sczesny, 2006). 그러나 이들 중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며, 유아기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발달 정도를 비교한 연구는 더욱 보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유아기 정서발달의 기초 정보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모두 잘 인식하는지, 그 중 더

쉽게 인식하고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하는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단서에 따른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유아가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회적 단서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가 포함된다. 언어적 단서가 정서를 인식하는데 비교적 명확한 도움을 주는데 비해 비언어적 단서를 정서인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Feshbach(1978)는 아동의 비언어적 단서를 해석하는 기술이 정서인식 뿐 아니라 감정이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정서를 나타내주는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성인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때, 다양한 사회적 단서들을 사용한다. 표정이나 사람의 성향, 상황과 정서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추론하여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는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릴 때 성인보다는 제한된 단서들을 사용한다.

정서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굴표정,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 단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Creusere, Alt, & Plante, 2004; Mehrabien, 1972). 상황과 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비언어적 단서 즉, 얼굴표정, 목소리 등의 단서에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cioppo, Martzke, Petty, & Tassinary, 1988). 즉, 언어적 단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이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언어적 단서로부터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 사고, 느낌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iegman & Feldstein, 1987).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공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언어적인 사회적 단서로는 표정과 상황을 들 수 있다. 표정과 상황이라는 서로 다른 단서는 정서에 대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즉,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일잔치라는 긍정적 상황에서 울고 있는 부정적 표정을 접했을 때, 두 사회적 단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단서들을 해석하는 능력은 유아가 성장할수록 증가한다(Blanck & Rosenthal, 1982; Hoffner & Badzinski, 1989).

Carroll과 Steward(1984)는 정서의 지각 및 추론에 대하여 네 가지 발달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0수준은 정서에 대한 지각이 없거나 모르는 단계이고, 1수준은 외적 단서에 의존하는 단계로 한 가지 단서에 의해 정서를 지각하는 경우이다. 2수준은 정서를 유발하는 단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을 언급할 수 있는 경우이며, 3수준은 질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적 단서를 체계적으로 언급하여 정서를 지각하는 경우이다. 유아기는 1수준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상황과 표정이라는 두 단서가 주어졌을 때 한 가지의 단서에 의존하여 정서인식을 하고, 두 단서를 모두 활용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황과 표정의 두 가지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Hoffner와 Badzinski(1989)의 연구에 따르면 단서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 유아는 표정단서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정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서로, 어린 연령의 아동은 주로 상황보다는 표정에 근거해서 정서를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정서를 표현하고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얼굴표정에 의해 전달되는 정서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얼굴표정을 알아보는 유아의 능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Markham & Admas, 1992). 오경자와 배도희(2002)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얼굴표정 인식능력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정단서에 대한 영아의 인식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국외연구가 이루어졌으며(Kim, Waldenb, & Knieps, 2010; Kobiella, Grossmann, Reid, & Striano, 2008) 영아기에도 표정단서를 인식할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학령기 아동들도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성에 도달한다(Markham & Admas, 1992).

Reichenbach와 Masters(1983)는 연령이 높은 유아는 상황단서로부터 많은 잠재적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시각적 표정단서보다는 언어적 상황단서에서 많은 것을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상황단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어린 유아의 경우 표정과 상황을 통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인지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정으로 표현된 정서와 상황이 모순된 경우에 유아는 정서인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즉, 유아기에는 단일한 정서 상황보다 복잡한 정서 상황이나 서로 모순된 단서를 가진 상황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권덕수(1996)의 연구도 6세 아동의 경우, 표정

과 상황이 일치하는 경우는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표정과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유아의 정서인식능력은 상황과 표정이 불일치하는 복합적인 정서 상황에서도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단일한 정서 상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권덕수(1996)는 정서 유형-단일 정서와 복합정서-에 따라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6세 아동의 경우 단일정서는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복합정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표정과 상황이 불일치하는 복합적인 정서 상황에서 정서인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표정과 상황이라는 두 개의 단서가 일치되게 또는 모순되게 주어졌을 때의 유아기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함께 연구된 바는 드물다. 뿐만 아니라 정서인식이나 감정이입과 관련하여 표정단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송인혜, 조경자, 김혜리, 2008; 오경자, 배도희, 2002; 이정현, 조경자, 박수진, 한광희, 김혜리, 2007; 태은주, 2008; 태은주, 조경자, 박수진, 한광희, 김혜리, 2008),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상황단서나 그 외의 다른 단서들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회적 단서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onora, Benuzzi, Monti, Mirandola, Pugnaghi, Nichelli, & Meletti, 2011; Fernández-Dols, Carrera, Barchard, & Gacitua,

2008)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해보고, 또한 표정단서와 상황단서 중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때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단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단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단서가 일치한 상태와 단서가 모순된 상태에서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들의 정서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유아기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3-1. 단일긍정에서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표 1. 용어의 정의

단일정서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는 경우
	단일긍정 정서: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두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단일부정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두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복합정서
복합정서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순되는 경우
	복합긍정 정서: 표정단서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단서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복합부정	표정단서는 긍정적 정서를, 상황단서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3-2. 단일부정에서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3-3. 복합긍정에서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3-4. 복합부정에서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에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용어정의는 표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만 5세 유아 104명과 그 유아의 어머니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1:1 면접을 실시하였고, 유아면접은 전문가와 논의 과정을 거치고, 면접훈련과정을 마친 후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은 비확률의 도표집으로 하였다. 어머니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져 기관으로 회수되면 연구자가 다시 회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은 만 3, 4, 5세 남·여 유아 총 20명을 대상으로 독립된 교실에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사 소요시간은 10~15분이었고, 조사자가 그림의 표정이나 상황을 묘사하여 설명함으로써 만 4, 5세 유아의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만 3세 유아는 면접 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유아 면접은 유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위해 교실과 떨어진 독립된 교실이나 장소에서 1:1 개별면접을 하였다. 면접은 교사와 의논하여 자유선택활동시간, 점심시간, 간식시간에 주로 실시하였으며, 귀가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먼저 귀가하는 유아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유아와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2~3분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상황그림을 단일긍정,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

의 순서로 차례대로 제시하고,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유아의 언어반응을 반응지에 기록하여 분석·채점하였다.

총 130명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19부(91.5%)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순서대로 면접을 하였으며,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11부를 제외하였다. 면접 중 질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4명의 유아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4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남자는 55.8%, 여자는 44.2%로 나타났으며, 4세는 35.6%, 5세는 64.4%였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14.4%, 첫째가 47.1%, 중간이 14.5%, 막내가 25%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58.7%, 36세 이상이 41.3%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36.5%, 대졸이상이 63.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59.6%가 전업주부였고, 40.4%가 취업주부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생산노무직이 1.9%, 판매서비스직이 9.6%, 전문기술직이 28.8%, 관리전문직이 8.7%, 기타가 51.0%였다.

가정의 수입정도는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이 1.9%,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6.7%,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0.2%,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7.9%, 400만원 이상이 43.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측정하기 위

한 도구는 Wintre와 Vallance(1994)의 Emotions Situation Questionnaire와 Feshbach와 Roe(1968)가 고안한 Affective Stituation Test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곽현주(1995), 이현주(1998), 최순옥(1998), 이경하(2003) 등이 사용한 검사 도구를 연구자가 유아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유아교육 전공자 1인과 연구자가 함께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정서를 나타내는 이야기

검사를 위해 사용된 정서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긍정 또는 부정의 정서 가운데 하나가 표정과 상황에 일치되게 나타나는 단일정서 상황과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과 상황이 모순되는 복합정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를 나타내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검사를 위한 질문 내용

질문1. 주인공은 어떤 마음일까? (정서인식)

질문2. 주인공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니? (사회적 단서)

질문3. 주인공을 보니까 너는 어떤 마음이 드니? (감정이입)

분석 및 채점 기준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및 채점 기준은 Hughes와 Tingle 및 Sawin(1981)의 연구를 이경하(2003)가 수정하여 설정한 기준을 참고하고 수정보완하여 표 3과 같이 연구자가 설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일긍정,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사회적 단서의 점수는 점수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 2. 정서를 나타내는 이야기

단일정서		복합정서	
단일긍정 (긍정적 표정 긍정적 상황)	오늘은 운동회 날이다. 주인공은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선생님께서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다(주인공은 기쁜 얼굴이다).	복합긍정 (긍정적 상황 부정적 표정)	오늘은 주인공의 생일이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 주인공은 초대받은 친구들로부터 선물과 축하를 받는다. 그런데 주인공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주인공은 슬픈 얼굴이다).
단일부정 (부정적 표정 부정적 상황)	주인공은 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 주인공이 가지고 놀던 자동차를 친구가 빼앗아 간다. 주인공은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친구는 약을 올리며 자동차를 가지고 가버린다(주인공은 화난 얼굴이다).	복합부정 (부정적 상황 긍정적 표정)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다. 엄마는 맛있는 김밥과 간식을 챙겨주신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것을 본 주인공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주인공은 기쁜 얼굴이다).

표 3. 분석 및 채점기준

▶ 정서인식	
질문1. 주인공은 어떤 마음일까?	0점 : 틀린 답이나 무반응일 경우
	1점 : 일반적으로 좋다·나쁘다와 같은 반응일 경우 예 - 기분 좋아요. 슬퍼요
	2점 : 주인공의 정서와 일치하는 반응일 경우 (구체적으로 감정묘사를 표현한 경우) 예- 생일날 친구들이 많이 와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 사회적 단서	
질문2. 주인공이 그런 마음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니?	0점 : 얼굴 표정 단서를 사용한 경우
	1점 : 상황단서를 사용한 경우
	2점 : 표정과 상황단서를 통합한 경우
	3점 : 기타
▶ 감정이입	
질문3. 주인공을 보니까 너는 어떤 마음이 드니?	0점 : 틀린 답이거나 무반응일 경우
	1점: 일반적으로 좋다·나쁘다와 같은 반응일 경우 예- 나도 기분 나빠요
	2점 : 주인공의 정서와 일치하는 반응일 경우(구체적으로 감정묘사를 표현한 경우) 예- 자기 장난감인데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니까 화나고 속상해요

어떤 단서(표정과 상황 등)를 사용하는가 하는 유형에 대한 분류를 의미한다. 두 연구자가 함께 채점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채점기준의 적용을 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채점의 기준을 숙지한 후, 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 1인이 유아의 응답을 채점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통하여 얻은 결과자료를 SPSS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것은 빈도, 백분율을 통해 알아보았고,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t*-test, paired-*t*-test, *F*-test,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의 차이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의 차이

표 4.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의 차이

		정서인식							
		단일긍정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유아 성	남아	58	1.21 (.41)	58	1.62 (.49)	58	.93 (.79)	58	.97 (.92)
	여아	46	1.24 (.48)	46	1.59 (.54)	46	1.17 (.80)	46	1.00 (.94)
	<i>t</i>		-.37		.33		-1.55		-.19
유아 연령	4세	37	1.11 (.39)	37	1.43 (.55)	37	.59 (.76)	37	.62 (.83)
	5세	67	1.28 (.45)	67	1.70 (.46)	67	1.28 (.71)	67	1.18 (.92)
	<i>t</i>		-2.06*		-2.51*		-4.60***		-3.06**

* $p < .05$, ** $p < .01$, *** $p < .001$

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아의 성에 따라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단일긍정정서($t = -2.06$, $p < .05$), 단일부정정서($t = -2.51$, $p < .05$), 복합긍정정서($t = -4.60$, $p < .001$), 복합부정정서($t = -3.06$, $p < .01$)에서 정서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든 정서에서 5세가 4세보다 정서인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감정이입의 차이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감정이입의 차이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아의 성에 따라서는 단일긍정 정서($t = -2.04$, $p < .05$)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상황과 표정이 모두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여아가 남

아보다 감정이입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단일긍정 정서($t = -2.83$, $p < .01$), 단일부정 정서($t = -2.20$, $p < .05$), 복합긍정 정서($t = -2.45$, $p < .05$), 복합부정 정서($t = 3.65$,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든 정서에서 5세가 4세보다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의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을 함에 있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정서인식은 단일긍정과 단일부정($t = -6.41$, $p < .001$)간에 유의

표 5.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감정이입의 차이

독립변수 \ 종속변수		단일긍정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	
		감정이입 능력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유아 성	남아	58	.93 (.53)	58	1.38 (.75)	58	.88 (.70)	58	.86 (.89)
	여아	46	1.13 (.45)	46	1.46 (.62)	46	1.11 (.71)	46	1.11 (.88)
	<i>t</i>	-2.04*		-.56		-1.65		-1.42	
유아 연령	4세	37	.84 (.50)	37	1.22 (.75)	37	.76 (.72)	37	.57 (.84)
	5세	67	1.12 (.48)	67	1.52 (.64)	67	1.10 (.68)	67	1.19 (.84)
	<i>t</i>	-2.83**		-2.20*		-2.45*		-3.6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간의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n=104)

변수	정서 유형	M	SD	paired- <i>t</i>
정서인식	단일정서	긍정	1.22	-6.41***
		부정	1.61	
	복합정서	긍정	1.04	.65
		부정	.98	
감정이입	단일정서	긍정	1.02	-5.41***
		부정	1.41	
	복합정서	긍정	.98	.12
		부정	.97	

* $p < .05$, ** $p < .01$, *** $p < .001$

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상황과 표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보다 더 잘 인식하였다. 상황과 표정이 부정적

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보다 유아의 정서인식을 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복합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이입 또한 단일긍정 정서와 단일부정 정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41$, $p<.001$). 즉,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에 더 감정이입을 잘하였다. 즉, 유아의 감정이입은 상황과 표정이 부정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표 7 - 표 10을 통해 사회적 단서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단서의 유형은 표정과 상황 중 어느 단서를 유아가 선택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나, 표정과 상황단서를 모두 사용한 경우도 따로 구분하였고, 대답은 하였으나 상황이나 표정단서를 이용하지 않은 그 외 경우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알았어요 등).

단일긍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상황과 표정이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단일긍정 정서의 경우,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단일부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상황과 표정이 부정적으로 일치하는 단일부정 정서의 경우,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복합긍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상황은 긍정적이고, 표정이 부정적인 복합긍정 정서의 경우, 사회적 단서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F=3.77$, $p<.05$)과 감정이입($F=6.90$, $p<.001$)은 표 9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인식은 어떠한 사회적 단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감정이입 또한 어떠한 사회 단서를 사용하느냐에 따

표 7. 단일긍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변수	단서 유형	N	M	SD	F
단일긍정	정서 인식	표정	26	1.19	.93
		상황	41	1.29	
		기타	37	1.16	
	감정이입	표정	26	1.12	.87
		상황	41	1.02	
		기타	37	.95	

* $p<.05$, ** $p<.01$, *** $p<.001$

표 8. 단일부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변수	단서 유형	N	M	SD	F
단일부정	정서 인식	표정	32	1.53	.56
		상황	38	1.61	.50
		기타	33	1.64	.49
	감정이입	표정	32	1.56	.67
		상황	38	1.50	.51
		기타	33	1.18	.85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복합긍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변수	단서 유형	N	M	SD	F
복합긍정	정서 인식	표정	21	1.24	.83
		상황	38	1.18	.65
		표정과 상황	10	1.30	.82
		기타	35	.69	.83
	감정이입	표정	21	1.10	.77/ab
		상황	38	1.13	.58/ab
		표정과 상황	10	1.50	.71/a
		기타	35	.60	.65/b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복합부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의 차이

변수	단서 유형	N	M	SD	F
복합부정	정서 인식	표정	15	.20	.41/a
		상황	47	1.51	.78/b
		기타	37	.65	.86/a
		표정과 상황	5	.80	1.10
	감정이입	표정	15	.73	.80/a
		상황	47	1.43	.77/b
		기타	37	.49	.77/a
		표정과 상황	5	1.00	1.00

*** $p < .001$

※ 표정과 상황을 모두 단서로 사용한 유아가 소수여서 분산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평균과 표준표차만 제시하였음.

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표정과 상황단서를 모두 사용하는 유아가 기타단서만 사용한 유아보다 감정이입을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부정 정서에서 사회적 단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상황은 부정적이고 표정은 긍정적인 복합 부정 정서의 경우, 사회적 단서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F=22.41, p<.001$)과 감정이입($F=16.02, p<.001$)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황단서를 사용하는 유아가 표정이나 기타 단서를 사용한 유아보다 정서인식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단서를 사용하는 유아가 표정이나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보다 감정이입도 더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에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사회적 단서의 일치 또는 모순된 경우에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바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정서인식은 단일정서와 복합정서 간에, 즉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71, p<.001$). 즉, 상황과 표정이 모순되는 경우보다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경우에 유아가 정서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감정이입 또한 단일정서와 복합정서 간에, 즉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69, p<.001$). 즉,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경우에서 상황과 표정이 모순된 경우보다 유아가 감정이입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로 다른 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

표 11.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에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

변수	유형	M	SD	paired-t
정서인식	사회적 단서의 일치	1.41	.36	5.71***
	사회적 단서의 모순	1.00	.73	
감정이입	사회적 단서의 일치	1.22	.48	3.69***
	사회적 단서의 모순	.98	.68	

*** $p<.001$

※ <표 11>에 제시된 단일정서(단서의 일치)의 점수는 단일긍정 점수와 단일부정 점수의 평균이며, 복합정서(단서의 모순)의 점수는 복합긍정 점수와 복합부정 점수의 평균이다.

를 인식하기 위해 사회적 단서로 어떠한 유형을 더 이용하는지를 알아보았고, 사회적 단서 사용에 따라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정도가 다른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단순한 경우와 모순되는 복합적인 경우에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발달정도를 파악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들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감정이입의 경우 단일긍정 정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황과 표정이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이입을 더 잘 하였다. 그러나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단일긍정, 단일부정, 복합긍정, 복합부정에서 5세가 4세보다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고 감정이입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는 경우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서인식을 더 잘하고 감정이입도 더 잘 하였다. 그러나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가 없었다.

셋째,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없었고,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단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단일정서와 복합정서 즉,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느냐 모순되느냐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순되는 경우보다 일치하는 경우에 정서인식을 더 잘하고 감정이입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에 따라 정서인식에는 차이가 없었고 감정이입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감정이입을 여아가 남아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감정이입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노성은, 1998; 홍정주, 1988; Bryant, 1982; Casey,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아와 남아는 정서를 표현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다른 사회화를 경험하고,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표현에 더 허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타인에 정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부정적 정서인 경우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이는 여아의 감정이입이 남아보다 다소 앞서

있기는 하나 모순된 단서를 남아보다 더 잘 이해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기에는 모순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여 감정이입을 하는 능력에서는 큰 성차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5세가 4세보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이입은 연령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선희, 1996; 전경실, 1993; 홍길희, 1987; Eisenberg & Mussen 198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 단순히 연령에 따라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발달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세와 5세 간에 사회적 단서 인식의 차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세와 5세 간의 정서인식의 평균 점수의 편차는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에 더 컸으며, 이는 4세가 일치된 단서를 이해하는 능력보다 모순된 단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보다 잘 인식하고 감정이입을 잘 하였다. 즉, 유아기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보다 더 빨리 발달하고 감정이입도 부정적 정서에 대해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아기의 나타나는 초기 정서의 대부분이 즐거움이나 흥미 같은 긍정적 정서보다는 슬픔, 놀람, 공포, 짜증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서도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더 늦은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발달이나 인식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편으로 이러한 해석을 검증하기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우선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사용하는 정서인식 단서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는 상황단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단서와 표정단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6~7세 아동의 경우 표정 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Hoffner와 Badzinski(198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단서의 일치여부와 상관없이 어린 유아는 표정단서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Reichenbach와 Masters(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들이 표정단서를 40%, 상황단서를 60% 사용하여 상황단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이현주(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오늘날 유아의 발달이 앞당겨 이뤄지므로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다. 80년대 유아의 응답과 90년대, 2000년대 유아의 응답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주어진 이야기의 상황이 유아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에 가까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아들의 주의를 끄는데 불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과소평가한 유아의 상황단서 인식능력에 새롭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가 표정단서를 사용한 유아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다. 기타단서를 사용한 응답은 “그냥 알았어요. 내가 생각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무응답” 등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표정단서와 상황 단서가 부정적으로 모순되는 경우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의 정서인식이 표정단서를 사용한 유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들의 정서인식이 크게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용한 단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일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동화책,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의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는 표정단서를 사용한 유아보다 감정이입이 낮았으며 이점은 분명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들의 정서발달의 일정 부분이 표정단서를 사용하는 유아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단서 사용에 따른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단일정서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사회적 단서사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복합정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표정과 상황단서를 사용한 유아가 기타단서를 사용한 유아보다 정서인식도 잘 하고 감정이입도 잘 하였으며, 복합정서 중에서도 복합긍정 정서보다는 복합부정 정서에서 상황을 단서로 본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 유아기는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하였고, 상황단서를 사용

할 줄 아는 유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상황단서는 부정적이고 표정단서는 긍정적인 경우, 표정과 상황단서를 모두 사용한 유아가 가장 높은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지라도 이들이 가장 발달된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보인 것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단서를 사용할 줄 아는 복합적인 능력의 발달이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발달의 수준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개의 단서를 모두 사용한 유아는 소수에 불과해, 유아기에는 주로 한 가지 단서를 사용하여 정서를 인식하거나 감정이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은 사회적 단서가 일치하는 경우와 모순되는 경우 즉, 단일정서와 복합정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복합정서에서보다 단일정서에서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단일한 정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복합정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밝힌 권덕수(1996)에 의해 지지된다. 즉, 유아기에는 서로 다른 모순된 단서가 있는 상황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과 상황이 모순되는 정서보다는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정서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과 연령, 정서의 종류 및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의 정서인식

과 감정이입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이입을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인식을 잘하고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잘 인식하고,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에 사용하는 사회적 단서로는 기타단서나 표정단서보다 상황단서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표정단서와 상황단서가 모순된 상황에서 상황단서를 사용하는 유아가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은 상황과 표정이 일치하는 경우에 모순된 경우보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서의 종류와 사회적 단서에 따라 유아들이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이 다를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결과를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면접 유아의 수와 지역이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단서는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다양한 정서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사회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을 하는가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쳤다.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곽현주 (1995). 정서교육활동경험이 유아의 감정이입 및 사회정서적 문제해결과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승희, 김숙령 (2006). 유치원에서의 감성교육 활동이 유아의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53-66.
- 권덕수 (1996). 단일정서상황과 복합정서상황에서의 아동의 정서이해, 정서의 강도 및 감정표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96). 아동의 감정이입 수준 및 상황에 따른 도덕적 민감도 발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경 (1992). 아동의 감정이입 발달과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은 (1998). 3세 유아의 감정이입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영 (1985). 5, 6세 유아의 감정이입과 이타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2006). 아동발달. 교문사.
- 박윤정 (1997). 귀인 및 정서인식능력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승희 (1997). 정서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혜, 조경자, 김혜리 (2008). 정서차원과 얼굴제시영역이 얼굴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2), 197-214.
- 오경자, 배도희 (2002). 아동 청소년의 얼굴 표정을 통한 정서인식능력과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3), 515-532.
- 유 경 (2000). 아동의 혼합 정서 이해의 발달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하 (2003). 동시관련 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97).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정현, 조경자, 박수진, 한광희, 김혜리 (2007). 얼굴 표정의 제시 유형과 제시 영역에 따른 정서인식 효과. 감성과학, 10(1), 113-125.
- 이현주(1998). 감정이입과 이타심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실 (1993). 유아의 감정이입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순옥 (1998). 정서교육활동이 만3세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 및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은주 (2008). 얼굴표정읽기에 있어 개인차변인 연구-공감하기와 체계화하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은주, 조경자, 박수진, 한광희, 김혜리 (2008). 공감-체계화 유형에 따른 얼굴표정 읽기의 차이-정서읽기와 정서변별을 중심으로 -. 감성과학, 11(4), 613-628.
- 허정목 (200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길희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및 감정이입(Empathy)과 동료간의 지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신흥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10집.
- 홍정주 (1988). 아동의 감정이입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화진 (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jlstra, G., Holland, R.W., & Wigboldus, D. H. J. (2010). The social face of emotion recognition: Evaluations versus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657-663.
- Blanck, P. D., & Rosenthal, R. (1982). Developing strategies for decoding "leaky" messages: On learning how and when to decode discrepant and consistent social communications. In R. S. Feldman(Ed.), *Development of nonverbal behavior*

- in children (pp.203-229). New York: Springer-Verlag.
- Bonora, A., Benuzzi, F., Monti, G., Mirandola, L., Pugnaghi, M., Nichelli, P., & Meletti, S. (2011). Recognition of emotions from faces and voices in medial temporal lobe epilepsy. *Epilepsy & Behavior*, 20, 648-654.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acioppo, J. T., Martzke, J. S., Petty, R. E., & Tassinari, L. G. (1988). Specific forms of facial EMG response index emotions during an interview: From Darwin to the continuous flow hypothesis of affect-lade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92.
- Carroll, J. J., & Steward, M. S. (1984). The role of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s understandings of their own feelings. *Child Development*, 55, 1486-1492.
- Casey, R. J. (1993).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Relations among expression, self-report,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19), 119-129.
- Charlesworth, W. R. (1982). An ethological approach to research on facial expressions. In C. E. Izard(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pp.317-3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usere, M., Alt, M., & Plante, E. (2004). Recognition of vocal and facial cues to affect in language-impaired and normally-developing preschool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7, 5-20.
- Eisenberg, N., & Lennon. (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552-557.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nández-Dols, J., Carrera, P., Barchard, K.A., & Gacitua, M. (2008). False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causes and implications. *Emotion*, 8, 530-539.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B. 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pp.1-47). New York :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and seven-year-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ischer, A. H., Mosquera, P. M. R., van Vianen, A. E. M., & Manstead, A. S. R. (2004). Gender and culture differences in emotion. *Emotion*, 4, 87-94.
- Harter, S., & Buddin, B. J. (1983).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Harter, S., & Buddin, B. J. (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88-399.

- Hochschild, A.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607-622.
- Hoffman, M. L. (1983). Empathy, guilt and social cognition. In W. F. Overton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ffner, C., & Badzinski, D. M. (1989). Children's integration of facial and situational cues to emotion. *Child Development*, 60, 411-422.
- Hugenberg, K. (200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facial threat: Target race moderates the response latency advantage for happy faces. *Emotion*, 5, 267-276.
- Hugenberg, K., & Sczesny, S. (2006). On wonderful women and seeing smiles: Social categorization moderates the happy face response latency advantage. *Social Cognition*, 24, 516-539.
- Hughes, R. Jr.,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Kim, G., Waldenb, T. A., & Kniespb, L. J. (2010). Impact and characteristics of positive and fearful emotional messages during infant social referencing.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3, 189-195.
- Kobiella, A., Grossmann, T., Reid, V. M., & Striano, T. (2008). The discrimination of angry and fearful facial expressions in 7-month-old infants: Anevent-related potential study. *Cognition and Emotion*, 22, 134-146.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kham, R., & Admas, K.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receptive nonverbal processing abilities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in girls and boys. *Childre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6, 21-39.
- Mehrabien, A.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aldine/Atherton.
- Morrison, R. L., & Bellack, A. S. (1981). The role of social perception in social skill. *Behavior Therapy*, 12, 69-79.
- Reichenbach, L., & Masters, J. C.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e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al*, 54, 993-1004.
- Siegman, A. W., & Feldstein, S. (1987). *Nonverbal behavior and communication*. Hillsdale, NJ: Erlbaum.
- Staub, E. (1979). The use of role playing and including in children's learning of helping and shar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42, 341-349.

- Székely, E., Tiemeier, H., Arends, L. R., Jaddoe, V. W. V., Hofman, A., Verhulst, F. C., Catherine M. & Herba. C. M. (2011).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by 3-year-olds. *Emotion*, 11(2), 425-435.
-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509-514.

1차 원고접수 : 2011. 4. 15

수정원고접수 : 2011. 5. 22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Young Children's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Related to Social Cues and types of emotion

Lee, Sang-Mi

Education Center

Han, Sae You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young children's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across diverse social cues and across different types of emo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4 four-and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Cheong-ju. The children participated in interviews measuring their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and mother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report on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and the survey were processed using SPSS 12.0, and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aired t-test, and F-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irls were better at empathy than boys and older children were better at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than younger ones. Second, the young children recognized and empathized with negative emotions better than with positive emotions. Third, children used more situational cues than facial cues and miscellaneous cues. Particularly, when facial cues contradicted situational cues, children who used situational cues were better at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than children who used facial cues primarily. Fourth, young children were better at emotional recognition and empathy when situational cues were concordant with facial cues than when they we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Key words : Social Cues, Empathy, Emotional Recognition, types of emotion